유사나 '영양 공급' 금빛 결실 맺었다

30년간 공식 뉴트리션 파트너 활동
빙속 500m 흑인 여성 첫 金 뒷받침
쇼트트랙 금메달 황대헌 등도 지원
KBL에 종합비타민 '헬스팩' 제공도

유사나는 30여년간 세계 각국에서 다양한 종목의 스포츠 선수를 후원하는 '유사나 스포츠선수' 프로그램을 통해 이번 베이징동계올림픽에서12종목에 걸쳐 21개의 메달을 획득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사진 | 유사나코리아

세포과학 뉴트리션 전문기업 유사나 헬스사이언스코리아(이하 유사나)의 30년 스포츠계 지원이 베이징동계올림픽에서 금빛 결실을 맺었다. 유사나는 최근 막을 내린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 '유사나 스포츠 선수' 프로그램을 통해 후원한 각국 국가대표 선수들이 12개 종목에서 금메달 8개, 은메달 8개, 동메달 5개 등 총 21개의 메달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황대헌 등 6개국 선수 146명 지원

우선 우리나라의 경우 남자 쇼트트랙 1500m에서 황대헌이 첫 금메달에 이어 남자 5000m 계주에서 곽윤기, 김동욱, 박장혁, 이준서와 함께 은메달로 12년 만의 메달 획득에 성공했다.

이번 베이징 동계올림픽에는 한국을 비롯해 미국, 캐나다, 독일, 이탈리아, 멕시코 등 '유사나 스포츠' 프로그램의 후원을 받는 6개국 146명의 선수가 참가했다. 이중 유사나와 오랜 인연을 이어온 미국 에린 잭슨은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500m에서 37초04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해당 종목의 첫 흑인 여성 금메달리스트이자 30년여 년 만에 우승한 미국선수로 의미가 남달랐다.

유사나는 스포츠 후원 프로그램인 'USANA Athletes(유사나 스포츠 선수)'를 통해 30년 동안 세계 각국에서 다양한 종목의 공식 뉴트리션 파트너로 활동하고 있다. 약물 도핑에 민감한 선수들을 위해 세계도핑방지기구(WADA), 미국풋볼리그 및 미국풋볼선수협회(NFL, NFLPA), 미국 메이저 리그 및 선수협회(MLB, MLBPA)의 금지약물과 관련된 제품 테스트 및 시설 조사를 통과했다. 미국의약품제조품질관리 기준(GMP) 등에 준수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동계올림픽 국가대표 외에 한국농구연맹(KBL)과 3년 연속 공식 뉴트리션 후원을 하고 있다. 또한 스타선수 허훈이 소속된 수원KT 소닉붐에도 이번 시즌부터 뉴트리션 후원을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수원KT 선수들은 2021-22 프로농구 시즌 동안 유사나의 종합비타민인 '헬스팩'을 비롯해 개인별 필요한 맞춤 건강기능식품을 제공받고 있다. 유사나 '헬스팩'은 현대인의 일상생활에서 부족하기 쉬운 영양 성분을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도록 14가지 비타민, 9가지 미네랄과 7가지 다양한 식물성분을 한 포에 담은 종합 비타민이다.

홍긍화 유사나코리아 지사장은 "유사나 스포츠 선수들은 세계무대에서도 폭넓은 재능과 경험, 스포츠맨십을 보여주며 최고의 전문성을 증명했다. 세계적인 위상을 높인 유사나 스포츠 선수들에게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라고 말했다.

●주력 사업 '다이어트 챌린지'도 개시

유사나는 국내 시장에서 역점을 두는 주력 사업 중 하나인 '유사나 다이어트 챌린지'의 2022년 이벤트도 2월부터 시작했다. '유사나 다이어트 챌린지'는 지난해 1만9377명이 참여해 81%의 높은 달성율을 기록한 체중조절 프로그램이다.

다이어트를 목표로 세운 이들에게 28일 동안 전문적인 통합 영양식단 프로그램과 전용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운동 미션을 제공한다. 개인전은 물론, 단체전까지 구성해 다양한 참가 혜택과 특별 선물을 제공한다. 매월 진행하며 참가자에게 맞춤형 감량 체지방률을 제시하고, 식단과 운동으로 구성된 일일 및 주간 미션 참가를 격려한다. 올해는 체중 감량뿐만 아니라 식사습관, 운동, 수면, 스트레스 관리 등을 도와 건강한 라이프스타일을 만들 수 있는 다양한 패키지를 운영하고 있다.

김재범 기자 oldfield@donga.com

"50조 시장 잡아라"…제약·바이오기업들 英 공략 러시

정책지원 힘입어 시장 규모 팽창
8일 한·영 생명과학 웨비나 개최
국내기업 진출 위한 교두보 마련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전경. 유럽의 제약바이오강국인 영국시장 진출을 위해 현지 유력 기관과의 활발한 교류를 펼치고 있다. 사진 |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이번에는 '50조 시장'이다. 지난해부터 남미, 미국 등 해외시장 진출에 속도를 내고 있는 국내 제약업계가 유럽 바이오산업의 강대국인 영국으로 눈길을 돌렸다.

제약업계는 현재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원희목)를 중심으로 최근 영국시장 진출을 위한 전략 마련에 나서고 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영국의 의약품시장 규모는 약 420억 달러(약 50조 원)로 추산된다. 영국의 생명과학 산업은 약 24만 명의 고용과 연간 700억 파운드(약 113조 원)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으며 세계적 수준의 대학과 영국 국민보건서비스(NHS)를 통해 축적한 임상역량, 미국 다음가는 바이오클러스터 등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정부 차원에서 지난해 새로운 생명과학 비전을 발표하는 등 정책지원을 집중해 앞으로 더 가파르게 성장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본격적인 영국 진출을 위해 업계는 8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와 주한영국대사관 공동으로 '한·영 생명과학 웨비나'를 개최한다. 영국국제통상부(DIT) 부국장을 비롯해 메드시티 클러스터 개발책임자, 세포 및 유전자치료 캐터펄트 책임자 등 영국 정부 관계자 및 바이오클러스터의 핵심 기관 대표자들이 현지 생명과학 생태계 현황을 소개하고 한국기업의 시장진출 전략을 제시한다.

영국국제통상부(DIT)는 외국 기업의 영국 시장 안착을 위해 전문가 컨설팅과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기관이다. 메드시티는 런던, 케임브리지, 옥스포드를 잇는 골든 트라이앵글 지역에서 생명과학 분야의 연구, 상업화, 창업 및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생태계를 조성하고 있다. 세포 및 유전자치료 캐터펄트는 기초 연구와 상업화의 격차를 줄여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세운 생명과학 비영리 기관이다.

한편,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2019년 영국에 제약바이오산업 사절단을 파견해 메드시티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했고 지금까지 4차례 공동심포지엄 등을 개최하는 등 교류를 이어오고 있다. 협회는 웨비나를 통해 메드시티를 비롯한 주요 기관과 교류의 폭을 넓히고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의 영국 진출을 가속화한다는 계획이다.

김재범 기자

박경호의 운수 좋은 날

3월 3일 (목) 음력: 2월 1일 문의 : (02) 812-1201, 도원학당

쥐 행운색:흰색 길방:서	**소** 행운색:적색 길방:남	**호랑이** 행운색:적색 길방:남	**토끼** 행운색:검정 길방:북	**용** 행운색:적색 길방:남	**뱀** 행운색:노랑 길방:중앙
나의 운기가 쇠해서 시류에 맞지 않을 때에는 재빨리 물러나는 것이 최상의 방도이다. 무리하게 뚫고 나가려 하지 말고 쇠운이 지나가기를 기다려야 한다. 토끼의 날이다. 쥐띠가 토끼를 만나면 자묘형으로 풍파가 일어난다.	지금은 얼마든지 일을 맡아도 순조롭게 해나갈 수 있는 때이다. 일하면 할수록 주위로부터 인정받고 큰 보상을 받을 것이다. 고통을 받던 사람도 이제부터는 상승일로에 있다. 기발한 묘책으로 실리 달성을 획책하려하는 기운이 강한 날이다.	사리사욕을 떠나 정의를 관철해 갈 것, 또한 자기 기반을 굳게 닦고 실행할 것, 가급적 폭력은 피하라. 자기의 능력 이상으로 일을 벌이면 실패하기 쉬운 때이다. 이성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있을 수도 있으니 조심하라. 반복되는 일로 피곤하다.	운세는 좋은 때이며 직감에 호소하여 민첩하게 행동하면 효과를 본다. 첫 인상에서 좋게 느껴진 것은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 오늘은 연애문제가 일어나기 쉽다.한 가지 일에 매진 못하고 이것 했다 저것 했다 하는 날이다.	귀인의 도움으로 명예와 재물이 따르며 문서적인 문제도 자신의 소신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성간에도 원하는 상태로 돌입하며 좋은 인연을 맺게 될 것이다. 공연히 마음이 급해지는 날이다. 지름길을 찾고 싶어도 서두르지 말라.	과욕을 부리지 않는 상태라 하더라도 문서 및 서류로 인한 주위의 반목과 질시의 분위기가 초래 되며, 정신적 불안감 또한 조성되므로 명예나 이익의 추구보다는 이전의 안정 상태를 유지하도록 힘써라. 장애가 많은 날이다.
말 행운색:청색 길방:동	**양** 행운색:적색 길방:남	**원숭이** 행운색:노랑 길방:중앙	**닭** 행운색:검정 길방:북	**개** 행운색:적색 길방:남	**돼지** 행운색:청색 길방:동
앞으로 운이 좋아지는 때이나 모든 일에 지나치기 쉬우므로 새로운 일을 시작 할 때는 충분히 앞날을 고려하여 행하여야 한다. 급속히 성하고 곧 쇠하는 경향이 있어 시기를 보는 바가 민감해야 한다. 반복적인 일로 피곤한 날이기도 하다.	잠시 물러서서 다음 기회를 기다려야 할 때이다. 마음이 안정되지 않으므로 미련 있는 일이라도 과감하게 손을 떼는 것이 나중에 손해가 적다. 무슨 일이든 앞장서지 말라. 욕심을 부리면 큰 재난이 온다. 서두르지 말고 서서히 행동하라.	소원하는 일이 현재는 이루어지지 않겠으나 조금만 더 기다린다면 거의 성취되겠다. 먼 곳의 여행은 급한 일이 아니면 보류하는 것이 좋겠다. 손재수가 있으니 도난에 주의하고 도장과 문서를 조심하라. 일확천금을 노리는 날이다.	썰물의 배는 물이 차지 않으면 움직일 수가 없다. 시기가 올 때까지는 체념하고 기다려야 할 때이다. 태연하고 여유 있는 마음으로 차분히 노력해서 현재의 지위를 지켜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돼지띠를 만나 자문을 구하면 좋겠다.	산기슭에 연못이 있고, 그 연못을 낮춤으로써 산은 보다 높아지는 것이다. 손해를 보면서 얻으며, 눈앞의 작은 이익을 버리고 먼 미래를 차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개띠생은 음악이나 영화감상 등을 통한 휴식이 도움되겠다.	계획을 실천으로 옮길 수 있는 계기가 조성되며 직업이나 학업을 통해 보다 확고한 자신의 기반을 구축해야 하는 시기이다. 매사에 적극적인 자세로 임했을 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진급하게 되며 우월한 위치에 등극하게 된다.

남양주 프라임정형외과의 정형외과 전문의 임무준 대표원장(왼쪽)과 통증의학과 전문의 오율 대표원장.

척추관절질환 잡는 최첨단 장비 도입 '남양주 프라임정형외과' 문 열었다

척추관절질환 전문 남양주 프라임정형외과가 남양주 4호선 오남역 부근에 2월 21일 개원했다.

각종 척추관절질환을 맞춤형 수술 및 비수술적 치료로 진료하는 전문병원으로 원장단은 대학병원에서 임상경험을 쌓은 의료진으로 구성됐다. 정형외과 전문의 임무준 원장과 통증의학과 전문의 오율 원장이 대표원장을 맡았다.

척추클리닉, 관절클리닉, 도수치료, 수술 후 재활치료, 스포츠손상, 교통사고 치료, 산재 및 검진센터 등을 운영하고 목디스크, 허리디스크를 비롯해 어깨 통증, 무릎 통증 등의 근골격계 통증 및 질환에 맞춤형 수술 및 다양한 비수술 치료를 시행한다. 척추 디스크 및 협착증 환자는 최소절개 내시경 시술을 통해 짧은 시술 시간과 빠른 통증감소 효과를 제공한다. 무릎 관절염 및 연골손상 환자는 인공관절 수술 및 줄기세포 수술을 통해 통증 없는 일상 복귀를 돕는다. 이밖에 오십견, 석회석 건염, 회전근개질환 등의 각종 어깨질환별 통증 원인을 해결하는 특수치료를 한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 병원에 고품질의 영상을 구현하는 MRI와 X-ray, 최신식 근골격계 초음파 등 척추, 관절, 내과질환 검진의 최첨단 장비를 갖추었다. 원장이 모든 시술 및 수술을 집도하며 무균수술실로 안전한 시술과 수술을 진행한다. 김재범 기자

분당차여성병원, 유전질환 권위자 유한욱 영입

유한욱 교수

차 의과학대학교 분당차여성병원은 선천성 유전질환 치료 분야의 권위자인 유한욱 교수를 영입했다. 유 교수는 파브리병, 고셔병,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 터너증후군 등 유전질환 분야 진료의 개척자로 고셔병 치료제 글루세라제를 국내 최초로 개발했다. 분당차여성병원은 앞으로 희귀 유전질환, 내분비 질환을 비롯한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에서 한층 높은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유 교수는 분당차여성병원 소아청소년과와 임상유전체의학센터에서 희귀질환, 선천성기형, 염색체질환등유전질환의 성인, 소아 환자와 소아당뇨병, 저신장증, 선천성갑상선질환, 성조숙증 등 소아내분비질환 분야를 치료하게 된다.

편집 | 한민규 기자 stopspe@donga.com

오늘의 날씨

3일(목)

서울 0/0	인천 0/0	춘천 0/0	
0 / 10	0 / 7	-5 / 11	
강릉 0/0	대전 0/0	전주 0/0	
3 / 10	-1 / 14	0 / 14	
광주 0/0	대구 0/0	부산 0/0	
1 / 16	-1 / 15	4 / 15	
창원 0/0	제주 0/0	지역	강수 확률 (오전/오후)
0 / 14	6 / 15	날씨	최저 / 최고기온℃

스포츠동아 The sportsdonga 제3775호
발행인·편집인 이인철 편집국장 연제호 사업총괄 김상수 광고국장 이승욱
편집부장 안도영 스포츠부장 정재우 엔터테인먼트부장 이정연
산업경제부장 양형모 사진부장 고종철 인쇄 동아일보사
광고문의 02-361-1612 구독신청 1588-2020 FAX 02-361-1617
www.sportsdonga.com (우) 0373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29
2008년 3월 3일 등록번호 서울 가-00131호 (일간) 2008년 3월 24일 창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구독료 : 한달 12,000원, 1부 700원
대표전화 02-361-1610 제보·투고 02-361-1616 sol@donga.com